

2015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 도입에 대한 학생 인식*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m, Sung Hye. (2014). Examining th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English section of the new 201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Modern English Education*, 15(2), 157-176.

In 2014, the new 201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easing student's test preparation and simplifying college admission criteria. The main changes in the 2015 CSAT include the integration of Type A and Type B in the English section, which were administered in the previous 2014 CSA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students' perception on changes in the English section of the 2015 CSAT.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at included questions about effects of the test and demand of the new test framework. In the survey, students reported that implementing the new 2015 test would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such as streamlining college admission standards, reducing students' test preparation burden, and revitalizing classroom teaching. Also, the students reported how the new English test framework should be constructed regarding difficulty level, content, and effectiveness of item types. Finally,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 on the CSAT are also discussed.

[2015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English test/students' perception/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시험/학생인식]

I. 서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교육개혁을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이 요구될 때마다 거듭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최근 들어 대학입시 관련 정책의 변화는 수능의 영어 영역에 급격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어 한해 시행되고 바로 폐지되면서 2014년에는 2015학년도 통합형 영어 시험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

* 본 연구는 '수준별 수능 영어 영역 시험 개선 연구'(김성혜, 김용명, 이병천, 박지선, 황필아, 2013)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정에 따른 2014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따라 국어·수학·영어에 대하여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었다¹. 수준별 수능은 수험생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교과중심의 출제를 강화시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실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준별 수능 시험은 복잡한 대입 전형을 오히려 더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이하 대입 제도 발전 방안)(교육부, 2013)과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 및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교육부·대교협, 2013)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었다. 특히 2016학년도까지 수준별 시험이 유지되는 국어와 수학 영역과는 달리 영어 영역은 2015학년도에 폐지된다. 영어 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는 주요 이유는 영어 수준별 수능(A/B형)이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학교 교육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수능이 대입에서 지니고 있는 강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볼 때, 수능의 변화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및 학교 현장의 지대한 변화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수능을 치르게 될 학생들은 주요 정책 수요자로 수능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13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형 시험으로의 전환에 따라 예측되는 학습자의 학습부담 경감 여부나 통합형 시험에 대비한 학생들의 대처 방안 등 통합형 시험이 학교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형 시험의 평가 체제의 방향성을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학생 인식은 어떠한가?
- 2)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 체제 구성에 대한 학생의 요구는 무엇인가?

¹ 수준별 A/B형 시험 도입 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수능체제의 개편 방안의 주요 사항은 사회·과학 탐구과목 1과목 축소, 직업탐구 5개 과목으로 통합, 제2외국어 및 한문의 선진화된 평가방법 도입 등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II. 이론적 배경

수능 외국어(영어) 시험은 1994학년도에 도입된 이래 2014년에 새로이 시행될 2015학년도 시험을 포함하여 크게 7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수능의 체제 변화에 따른 출제범위, 시험시간, 문항 수 및 배점 등 시험체제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표 1
수능 외국어(영어) 시험 주요 변화과정

학년도	출제범위	시험시간	문항 수	배점	특이사항
1994-1996	전 교과 (범교과적 소재)	80분	50	40	.1995학년도 수능 2회시행 폐지 .1996학년도 듣기 문항 10개로 확대
1997-1998	전 교과 (범교과적 소재)	80분	55	80	.대학별 교사 폐지 듣기문항 12개 말하기 문항 5개 출제
1999-2000	공통영어	80분	55	80	.제 6차 교육과정의 적용
2001-2004	공통영어	70분	50	80	.제2외국어시험 도입으로 문항수 축소
2005-2011	전 교과 (범교과적 소재)	70분 (듣기평가 20분 내외)	50	100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2012-2013	전 교과 (범교과적 소재)	70분 (듣기평가 20분 내외)	50	100	.2007 개정 교육과정 적용
2014	A형: 영어, 영어 I B형: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회화	70분 (듣기평가 30분 내외)	45	100	.수준별 시험 - 영역 명칭을 영어로 변경 영역 - 듣기 22문항/읽기 23문항 - 듣기 평가에 세트 문항 도입 (1대화/담화문 2문항) - 모듈형 시험지 구성 방식 도입
2015	영어I, 영어II	70분 (듣기평가 25분 내외)	45	100	.통합형 시험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

1. 2014학년도 이전의 단일형 수능 영어 시험

1994학년도에 도입된 수능 외국어(영어)는 전교과의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으며, 총 50문항에 40점을 배점하는 체제였다. 1994학년도에 연 2회 시행되던 수능은 난이도 조정 실패가 이슈가 되어 1995학년도에는 연1회로 줄여 계열별로 실시되었으며, 영어 시험은 듣기 문항이 기존의 8문항에서 10문항으로 확대되었다. 1997학년부터는 대학별 고사가 폐지되었고, 외국어(영어) 시험은 듣기 평가가 말하기 5문항을 포함하여 12개 문항으로 확대되었다. 1999학년도부터는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며, 2001학년도에는 제2외국어 시험이 도입되면서 문항 수가 50문항으로 축소되었고, 따라서 시험시간도 80분에서 70분으로 축소되었다. 2005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2012학년도부터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후 동일한 체제가 유지되다가 2014학년도에는 수능에서 처음으로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었다.²

2.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 영어 시험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 시험은 “교과중심의 출제를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시험에서 출제하는 내용을 일치시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교육과학기술부, 2011. 1. 26.) 도입되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에서 출제하는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영역 명칭을 ‘영어’로 변경하고, 영어 A형과 영어 B형을 도입하여 수험생 본인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A형 또는 B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2014학년도 수능 영어에서는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자 50문항에서 5문항 줄여 총 45문항으로 축소하였다(시험시간은 70분 유지). 2013학년도 수능과는 달리 듣기 평가의 변화가 많았는데 정부의 실용영어 강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듣기 문항을 기존의 17문항에서 5문항 늘려 총 22문항(약 50%)으로 확대하였고, 읽기영역에만 있던 세트 문항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세트 문항은 처음 출제하는 만큼 수험생의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2회 들려주기로 하였으며, 듣기 평가 시간도 20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확대되었다. 또한, 김용명 외 6인(2013)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메시지마다 동일한 문항 유형이 동일한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던 고정형 시험지 구성 방식을 모듈형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고정형 시험지에서는 문제를 시험 요령에 따라 푸는 경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문항 순서대로 풀지 않고,

² 김용명 외 5인(2010)과 김용명, 권오량, 이완기, 김진석과 고현숙(2011)에서는 ‘수능 10년사 I’(남명호 외 5인, 2005)의 대학학능력시험의 변천 과정 구분에 근거하여 외국어(영어)영역 시험을 실험기(1990-1992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 기간인 도입기(1994-1996학년도), 대학별 고사가 폐지되어 수능이 주요한 대입 전형 자료로 간주되었던 조정기(1997-2004학년도)로 구분하고 있다.

쉬운 문항을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시험 전략으로 인해 정답을 마킹하는데 실수를 유발한다는 현장의 진단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유사한 문항 유형을 가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모듈형으로 시험지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글의 주제, 주장, 목적, 제목, 요지, 시사점 등과 같은 문항 유형은 ‘대의 과약 모듈’에 속하는데 이 모듈에서 어떤 유형을 몇 문항 출제할지 시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은 수험생의 시험 부담 완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시행이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학생의 A·B형 선택과 대학의 A·B형 선택이 얽혀 입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대입 컨설팅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에서 수준별 수능의 유보를 요구하기도(성시윤, 천인성, 2013)하였다. 대입 간소화 정책의 관점³에서 수준별 수능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A/B형 시험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학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A/B형이 지정되고 대학마다 다른 다양한 수준별 수능 반영 방식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능 준비와 교사의 진학 지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영어 영역의 경우는 예체능계를 제외한 상위권 및 수도권 대학이 영어 A형을 거의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A형 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인문, 자연, 예체능계에서 영어 A/B형 모두를 지정한 대학은 각각 122개교(65%), 98개교(62%), 126개교(89%)에 달하지만,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에서는 A형을 지정한 학교가 전혀 없었다.

표 2

계열별 A/B형 반영 대학 수(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단위 : 개교)

구 분	국어			수학			영어		
	A/B	A	B	A/B	A	B	A/B	A	B
인문계열	136	2	50	106	50	0	122	0	65
자연계열	98	43	0	117	0	43	98	0	61
예체능계	132	11	1	74	5	1	126	7	9

이에 “A형과 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른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A형과 B형의 선택이 대입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하여,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수준별 시험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형 시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³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전형 요소를 축소하고 반영 방식을 단순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각 대학별로 설정하고 있는 전형 요소의 조합이나 비중이 서로 상이하어, 복잡한 현재의 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전형 요소만으로 축소하고 전형 요소별 비중 부여 방식을 표준화하자는 것이다(김성열, 2013; 박병영, 2013).

3.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2013)에 따르면,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듣기 평가 문항 수는 종전보다 5개 줄어든 17문항이며, 읽기 평가 문항 수는 종전보다 5개 늘어난 28문항이다. 듣기 평가 문항 수가 축소되고, 읽기 평가 문항 수가 확대됨에 따라 검사지의 구성도 달라진다. 김용명 외 6인(2013)는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수준별(A/B형) 수능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A형 중심으로 또는 B형 중심으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2013학년도 단일형 수능으로 회귀할 것인가’의 이슈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난이도, 출제범위, 평가영역 및 검사지 구성의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우선, ‘2014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따르면, 수준별 수능 시험의 기본적인 출제 방침은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며, B형은 ‘현행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한다.”이다. 따라서 A/B형이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면, 시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A형이 아니라 B형 쪽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형 수능을 현행 A형의 수준에 맞추어 출제한다면, 9등급의 점수 체계에서 적절한 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등급 간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입제도 발전 방안(시안)’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영역은 2016학년도까지 수준별 수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통합형 영어도 국어와 수학의 수준별 시험 중 B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 현행 A형과 B형의 핵심 시험 과목인 ‘영어Ⅰ’과 ‘영어Ⅱ’를 시험과목으로 지정⁴하였는데 이는 시험 과목 지정에 따른 수험생의 유·불리 문제와 학교 현장에서 시험과목의 이수 가능 여부에 비취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형 수능의 시험과목을 현행 수준별 수능 B형으로 한정할 경우, A형을 대비하여 학습한 수험생이 B형을 대비하여 학습한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며, 반대로 A형 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의 변별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2015학년도 수험생은 수능 시험 전까지 시험과목으로 지정된 ‘영어Ⅰ’과 ‘영어Ⅱ’과목의 이수가 가능하고 시험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⁴ 출제범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핵심 성취기준 선정(안)’과 ‘시험과목 지정(안)’이 있다(김용명 외 6인, 2013). 핵심 성취기준 선정(안)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성취 기준을 선정하여 이를 위계화하는 안을 말한다. 시험과목 지정(안)은 현행 수준별 수능에서처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중,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말한다.

셋째,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 및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에 따르면,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 수는 현행 수준별 수능보다 5개가 줄어든 17문항이며, 읽기 평가의 문항 수는 현행보다 5개 늘어난 28문항이다. 이에 따라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에서 어떤 모듈에서 어느 문항 유형을 줄이고, 또 늘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듣기 영역의 문항 수를 축소할 경우, 현행 수준별 수능 B형의 듣기 영역에서 동일 유형이나 유사한 유형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읽기 영역에서 문항 수를 확대할 경우, 현행 A형에는 있지만, B형에는 없는 문항 유형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합형 수능의 도입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시험체제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2015학년도 통합형 영어 시험의 도입으로 인한 대입간소화 정책의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험체제 구성에 있어 어떠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5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의 변화가 학교와 사회에 주는 영향과 영어영역 검사지 구성을 위해 필요한 난이도 등 평가체제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1132명의 2013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과 학교 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를 선정하고 대상학교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표 3은 설문대상자의 배경변인별 특성을 보여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근거하여 학교 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응답 인원 1,136명 중 1,065명이 본인의 모의 수능 외국어 점수 및 등급에 대하여 응답하였으며,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253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3.76%로 가장 많았고, 3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208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19.53%에 해당하였다. 응답한 전체 학생들 중 3-5등급의 학생들이 62.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2등급의 학생들은 18.22%이고, 6-9등급의 학생들은 18.97%였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B형 모의 평가에 응시하였다. 수준별 수능 A/B형 영어 시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 1,130명의 학생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4명으로 전체 응답 비율의 38.41%,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81명으로 33.72%를 차지하였다.

표 3
학생의 배경 변인별 특성

문항	구분	빈도	비율(%)	전체(명)(%)
지역	서울·경기도	400	35.21	1,136 (100.00)
	전라도	189	16.64	
	경상도	240	21.13	
	강원·충청도	307	27.02	
학교 수준	상	466	41.17	1,132 (100.00)
	중	426	37.63	
	하	240	21.20	
지역규모	대도시	400	35.34	1,132 (100.00)
	중소도시	467	41.25	
	읍면	265	23.41	
성별	남	538	47.53	1,132 (100.00)
	여	594	52.47	
모의수능 성적	1등급	81	7.61	1,065 (100.00)
	2등급	113	10.61	
	3등급	208	19.53	
	4등급	253	23.76	
	5등급	208	19.53	
	6등급	111	10.42	
	7등급	64	6.01	
	8등급	20	1.88	
	9등급	7	0.66	
모의평가 문항 풀이 경험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31	3.09	1,003 (100.00)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780	70.52	1,106 (100.00)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31	3.09	1,002 (100.00)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654	59.29	1,103 (100.00)
나는 수준별 수능 A/B형 영어 시험 에 대하여 잘 알 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3.63	1,130 (100.00)
	별로 그렇지 않다	163	14.42	
	보통이다	434	38.41	
	대체로 그렇다	381	33.72	
	매우 그렇다	111	9.82	

2. 설문지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통합형 영어 시험 도입에 따른 학교 및 학생에게 예상되는 변화, 통합형 수능의 평가체제에 대한 질문의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영어 수준별 A/B형 시험을 단일시험으로 통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학교의 변화에 대한 문항과 학생의 변화에 대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수능의 난이도, 평가 내용, 문항 수 등에 대한 평가체제에 대한 문항들과 적절한 듣기 문항의 수에 대한 문

항, 수준별 수능에서 도입된 새로운 문항의 유용성을 묻는 문항 등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척도 방식, 폐쇄형 및 개방형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설문지 내용 구성 체제 및 문항 번호

영역 (파트)	대분류	중분류
통합형 영어 시험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	수준별 A/B형 단일시험 통합 시 예상되는 학교와 학생 변화	선택 유·불리 해결 대입전형간소화 학교 학습 내용 중심 평가 수능 시험 준비 부담 경감 학교 수업 참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영어 학습 의욕향상 영어 성적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통합형 영어 시험 도입에 대한 태도
		통합형 영어 수능 난이도
통합형 수능의 평가체제	통합형 영어 수능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	A형 수준 B형 수준 A형과 B형의 중간수준 A형에 제시된 실용소재 B형에 제시된 기초학술 소재 실용소재를 일부 포함한 기초학술 소재중심
	통합형 영어 수능에 포함되어야 할 과목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현재문항의 적절성	예/아니오
	적절한 문항 수	-
	듣기 문항의 축소 필요성	예/아니오
	듣기축소 필요 이유	-
	적절한 듣기, 읽기 문항 수	문항 개수의 보기 제시
	듣기 문항 축소 반대 이유	학생의 실용 영어 사용 능력 감소 독해 영어수업 확대 학생의 학습부담 증가 교사의 수업 부담 증가 수능 시험의 변별력 확대
	듣기 문항 축소 시 읽기 문항 증가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	대처방안 보기 제시 기타 의견
	1대화/담화문 2문항에 대해 2번 듣기 적절성여부	한번/두번 보기 제시 이유
	듣기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듣기능력 향상의 유용성	짧은 대화 응답하기 세부 내용 찾기(이유 찾기) 대화의 주제(의견) 찾기 언급·불언급 찾기 그림과 대화의 일치·불일치 찾기 1대화/담화문 2문항 세트 문항

IV. 연구 결과

1. 통합형 수능 영어 시험 도입시 예상되는 학교와 학생의 변화

영어 수준별 시험을 단일 시험으로 통합하였을 때 예상되는 학교와 학생의 변화에 대한 학생 인식은 표 5와 같다.

표 5
통합형 수능 도입에 따른 학교와 학생의 변화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계	평균
A·B형 시험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해결	빈도 비율(%)	58 5.13	200 17.70	354 31.33	330 29.20	188 16.64	1130 100.00	3.35
영어 통합형 시험 도입으로 인한 대입전형 간소화	빈도 비율(%)	51 4.52	173 15.32	388 34.37	359 31.80	158 13.99	1129 100.00	3.35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심으로 평가받음	빈도 비율(%)	109 9.66	375 33.24	393 34.84	195 17.29	56 4.96	1128 100.00	2.75
수능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 경감	빈도 비율(%)	105 9.30	294 26.04	321 28.43	282 24.98	127 11.25	1129 100.00	3.03
학교 수업에 더 충실하게 참여함	빈도 비율(%)	101 8.94	295 26.11	439 38.85	202 17.88	93 8.23	1130 100.00	2.90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낮아짐	빈도 비율(%)	233 20.64	425 37.64	280 24.80	130 11.51	61 5.40	1129 100.00	2.43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아짐	빈도 비율(%)	119 10.54	331 29.32	371 32.86	224 19.84	84 7.44	1129 100.00	2.84
영어 성적 향상	빈도 비율(%)	86 7.61	209 18.50	370 32.74	351 31.06	114 10.09	1130 100.00	3.18
실용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빈도 비율(%)	146 12.92	383 33.89	433 38.32	124 10.97	44 3.89	1130 100.00	2.59
통합형 영어 시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빈도 비율(%)	68 6.03	109 9.66	356 31.56	328 29.08	267 23.67	1128 100.00	3.55

영어 수준별 시험을 단일 시험으로 통합했을 때 예상되는 학교와 학생의 변화에 관한 총 10문항에 대하여 평균 3점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합형 영어 시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3.55), A·B형 시험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해결(3.35), 영어 통합형 시험 도입으로 인한 대입전형 간소화(3.35) 등에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 성적이 향상되거나(3.18), 수능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3.03)하리라고 예상하였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인식은 가장 평균이 낮아(2.43) 학생들이 통합형 영어 시험으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

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영어 수준별 시험이 단일 시험으로 통합되었을 때 예상되는 학교와 학생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통합형 수능 평가체제에 대한 의견 분석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들을 기준으로 통합형 수능 평가 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통합형 수능의 난이도

구분	빈도	비율(%)
영어 수준별 수능 A형 수준	99	8.77
영어 수준별 수능 B형 수준	321	28.43
영어 수준별 수능 A형과 B형 중간 수준	709	62.80
소계	1129	100.00

통합형 영어 수능의 난이도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영어 수준별 수능 A형과 B형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2.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영어 수준별 수능 B형 수준이 28.43%, 영어 수준별 수능 A형 수준이 8.77%를 차지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A형과 B형 중간 수준의 수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A형과 B형 중에는 B형 수준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통합형 영어 수능 출제 시 강조하여야 할 내용

구분	빈도	비율(%)
영어 수준별 수능 A형에 제시된 실용 소재	322	28.62
영어 수준별 수능 B형에 제시된 기초 학술 소재	189	16.80
실용 소재를 일부 포함한 기초 학술 소재 중심	614	54.58
소계	1125	100.00

통합형 영어 수능 출제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실용 소재를 일부 포함한 기초 학술 소재 중심 항목을 54.58%의 학생이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며, 영어 수준별 수능 A형에 제시된 실용 소재 항목을 28.62%, 영어 수준별 수능 B형에 제시된 기초 학술 소재 항목을 16.80%의 학생이 선택했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초 학술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되 실용 소재를 일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통합형 영어 수능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목: 2007 개정 교육과정

구분	영어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빈도	555	624	417	612	141	1614	165
비율(%)	49.29	55.12	36.84	54.06	12.44	54.15	14.58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형 영어 시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목으로 생각 되는 항목을 선택하는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이었다. 영어(49.29%), 영어 I (55.12%), 실용 영어 회화(54.06%), 영어 독해와 작문(54.15%)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50%에 가깝거나 50%가 넘는 반면, 심화 영어 회화와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12.44%, 14.58%에 불과했다.

표 8

통합형 영어 수능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목: 2009 개정 교육과정

구분	실용 영어 I	실용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독 영어 II	영어 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빈도	369	490	402	219	521	294	507	313
비율(%)	32.60	43.29	35.48	19.33	46.02	25.95	44.83	27.6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형 영어 수능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목을 선택 하는 문항 역시 중복 응답이 가능한 문항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의 결과와 달리 50%의 비율이 넘는 교과목은 없었다. 영어 I (46.12%), 영어 독해와 작문(44.83%), 실용 영어 회화(43.29%)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실용 영어 II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19.33%로 가장 낮았다.

현재 수능 영어 시험의 문항 수가 적절한지 묻는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현재 문항 수의 적절성

구분	빈도	비율(%)
예	478	42.34
아니오	651	57.66
소계	1129	100.00

현재의 문항 수인 45개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4%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6%로, 현재의 문항 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항 수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634명 가운데 395(62.46%)의 학생들은 40문항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는 56(8.83%)의 학생들이 35개의 문항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현재 수능 영어 시험의 문항 수인 45개보다는 적은 수의 문항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듣기 문항 축소의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예	300	26.71
아니오	823	73.29
소계	1123	100.00

현재 22개인 듣기 문항 수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듣기 문항의 수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71%로 나타났다. 듣기 문항 수의 축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9%로, 다수의 학생들이 현재의 듣기 문항 수를 축소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듣기 문항 축소가 필요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듣기로 인한 독해 풀이 시간 부족	71	26.89
긴 듣기 시간으로 인한 학습자 부담 완화의 필요성	88	33.33
시험의 난이도, 변별도 조절의 어려움	41	15.53
독해 능력의 중요성	16	6.06
도농 간, 빈부격차 간 유·불리(사교육조장)	10	3.79
기타	38	14.39
소계	264	100.00

듣기 문항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제시한 듣기 문항 수 축소의 이유로는 듣기 시간으로 인한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3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듣기로 인한 독해 풀이 시간 부족이 26.89%로 많았다. 또한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도 조절의 어려움을 언급한 학생의 비율도 15.53%를 차지했다.

표 12

통합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듣기와 읽기의 문항 수

구분	빈도	비율(%)
듣기 15문항 읽기 30문항	61	14.12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	85	19.68
듣기 19문항 읽기 26문항	91	21.06
듣기 21문항 읽기 24문항	81	18.75
기타	114	26.39
소계	432	100.00

듣기 문항의 수를 축소하는 경우, 통합형 수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듣기와 읽기의 문항 수에 대해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기 19문항 읽기 26문항을 선택하였으며, 그 비율은 21.06%이다. 다음으로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을 선택하였으며, 그 비율은 19.68%이다.

표 13

듣기 문항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현행의 듣기 문항 비율이 적절	169	23.80
듣기의 중요성(실용성, 의사소통에 도움)	267	37.61
점수 획득의 수월성	137	19.30
시험의 난이도, 변별도 획득	23	3.24
사교육 조장 해소	6	0.85
기타	108	15.21
소계	710	100.00

반면 듣기 문항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기 문항이 실용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37.6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현행의 듣기 문항 비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3.80%를 차지했으며, 점수 획득에 수월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19.30%를 차지했다.

표 14

듣기 문항 축소 시 예상되는 변화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계	평균
실용 영어 사용 능력 감소	빈도	68	264	354	307	98	1091	3.09
	비율(%)	6.23	24.20	32.45	28.14	8.98	100.00	
독해 수업 확대	빈도	20	96	240	532	202	1090	3.73
	비율(%)	1.83	8.81	22.02	48.81	18.53	100.00	
학습 부담 증가	빈도	50	170	317	359	194	1090	3.44
	비율(%)	4.59	15.60	29.08	32.94	17.80	100.00	
수업 부담 증가	빈도	68	236	440	264	82	1090	3.05
	비율(%)	6.24	21.65	40.37	24.22	7.52	100.00	
수능 시험 변별력 확대	빈도	58	175	466	300	88	1087	3.17
	비율(%)	5.34	16.10	42.87	27.60	8.10	100.00	

듣기 문항 수 축소 시 예상되는 변화로는 ‘독해 영어 수업이 확대 될 것이다’(3.73)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는 평균 3.44였다. 그러나 학습 부담 증가와 수업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의 변별력이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의견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듣기 문항 축소, 읽기 문항 증가 시 학습 방법

구분	빈도	비율(%)
현재 공부 방식 유지	78	6.95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	30	2.67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	46	4.10
사교육 의존	370	32.98
EBS 강의 교재 중심으로 공부	168	14.97
독해 난이도 높이고 학습 시간 늘임	399	35.56
기타	31	2.76
소계	1122	100.00

듣기 문항 수가 축소되고 읽기 문항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35.56%) 독해 난이도를 높이고 학습 시간을 늘린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98%로 높았다. 또한 EBS 강의 교재 중심으로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4.97%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듣기 문항 축소에 대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가 감소할 것이라고(14명) 독해를 위한 공부로 편향될 것이라고(7명) 의견도 있었다.

표 16

세트 문항 듣기 횟수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비율(%)
한 번	76	6.73
두 번	1053	93.27
소계	1129	100.00

현재 수능 영어 시험에서는 세트 문항인 1대화·담화문 2문항이 새로 도입되면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 녹음을 2번 연속 들려준다. 이와 같은 듣기 세트 문항의 녹음 재생 횟수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문에 대해, 현재와 동일하게 두 번 들려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93.27%인 반면, 한번 들려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73%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듣기 세트 문항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두 번 들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듣기 문항 들려주는 횟수 - 한 번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한 번이면 충분	12	30.77
변별도 획득	16	41.03
집중력저하	8	20.51
기타	3	7.69
소계	39	100.00

현재 수능 영어 시험 듣기 영역에서 1대화·담화문 2문항의 세트 문항에 대해 한번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응답 학생의 41.03%는 ‘시험의 변별력’을 듣기 세트 문항을 한 번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로 선택했으며, 30.77%는 한 번의 듣기로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20.51%는 두 번 들려줄 경우 장시간이 듣기에 소비되어 오히려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기타 ‘실생활 듣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해 문제 풀이 시간 축소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18

듣기 문항 들려주는 횟수 - 두 번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놓친 부분에 대한 기회제공(소음, 실수 등으로 인한)	41	23.16
세부내용 파악에 적당	27	15.25
두 문제 풀이에 시간부족	55	31.07
두 문제이므로	24	13.56
기타	30	16.95
소계	177	100.00

수준별 수능 영어 시험의 1대화/담화문 2문항의 세트 문항에 대해 2번 들려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31.07%가 ‘두 문제 풀이에 있어 한 번의 듣기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23.17%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놓친 부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15.25%는 두 번의 듣기가 ‘세부 내용 파악’에 적당하다고 하였다. 전체 학생 중 13.56%는 단순히 ‘두 문제니깐 두 번 들려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교육 조장 우려’, ‘두 문제를 한 번만 듣고 풀려면 집중하기 어려움’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19

듣기능력 향상에 유용한 듣기 문항

문항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계	평균
짧은 대화 응답하기	빈도	74	156	432	377	93	1132	3.23
	비율(%)	6.54	13.78	38.16	33.30	8.22	100.00	
세부 내용 찾기	빈도	26	92	492	433	86	1129	3.41
	비율(%)	2.30	8.15	43.58	38.35	7.62	100.00	
대화의 주제 찾기	빈도	25	59	387	534	124	1129	3.60
	비율(%)	2.21	5.23	34.28	47.30	10.98	100.00	
언급 불언급 찾기	빈도	43	170	451	383	83	1130	3.26
	비율(%)	3.81	15.04	39.91	33.89	7.35	100.00	
그림과 대화의 일치 불일치 찾기	빈도	64	173	420	358	117	1132	3.26
	비율(%)	5.65	15.28	37.10	31.63	10.34	100.00	
1대화/담화문 2문항 세트문항	빈도	52	162	475	348	93	1130	3.24
	비율(%)	4.60	14.34	42.04	30.80	8.23	100.00	

수준별로 구성된 수능 영어 시험에는 새로운 유형의 듣기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시된 문항 유형이 듣기 능력 향상에 유용한 지를 묻는 질문에 제시된 모든 문항 유형이 3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대화의 주제(의견) 찾기’(3.60)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짧은 대화 응답하기’(3.23)가 가장 낮았다.

V. 결론

2014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 방안(교과부, 2011)에 따라 도입된 수준별 수능은 2013년 처음 시행되자마자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교육부, 2013)과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 및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에 따라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5학년도부터는 수준별 수능 A/B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능 영어 영역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학교 및 학생의 변화와 수준별 수능 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교육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의 시험 체제 및 검사지 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합형 수능 도입에 대해 평균 3.55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통합형 시험의 도입으로 대입전형이 간소화되고(3.35) 수준별 수능 A형과 B형의 수준 설정의 모호함이 해소되는(3.35) 등 수준별 수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수능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하고(3.03),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는(2.90)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통합형 수능의 도입이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실용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2.59)거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리라는 항목(2.43),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변화와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 등에 대한 문항에서의 다소 낮은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형 수능의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학교 영어 교육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합형 수능 평가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합형 수능은 영어 수준별 수능 A형과 B형의 중간 수준이 적절하고, 실용소재와 더불어 기초학술 소재를 다루어야 하며, 출제범위로 ‘영어I’, ‘실용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2007 교육과정), ‘영어I’, ‘영어 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회화’(2009 교육과정)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문항수 변화와 관련하여 듣기는 실용적인 의사소통 향상에 중요한 기능으로 듣기 문항이 축소되면, 독해 수업 확대(3.73), 학습 부담 증가(3.44), 실용 영어 사용 능력 감소(3.09) 등 문제가 생긴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듣기 문항 풀이 시간이 길어 수험자에게 부담이 되고, 독해 풀이 시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듣기 영역의 문항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문항 축소 시 듣기 문항은 19문항 정도가(전체 45 문항일 때)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은 좀 더 쉬운 수능을 선호하고, 출제범위 선정에서도 쉬운 수준 및 실용적 내용과 회화 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15학년도 통합형 시험의 듣기 시험은 단일형 체제에서 50문항 가운데 17문항으로 34%를 차지하던 것과 유사하게 대략 37%가량을 차지하지만 일단 읽기 문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듣기 문항 축소 및 읽기 문항 확대에 대하여 실용영어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있어 듣기의 중요성, 독해 문항의 난이도 증가, 사교육 의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용 영어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체제 구안에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쉬운 수능에 대한 선호와 듣기 문항 축소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쉬운 영어 수능 정책으로 인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4).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듣기 영역에서 ‘대의 파악’에서 2문항, ‘세부 사항’에서 2문항, ‘간접 말하기’에서 1문항씩 총 5문항이 축소되고, 읽기 영역에서는 대의 파악에서 3문항, ‘세부 사항’에서 2문항, ‘간접 쓰기’에서 3문항이 확대되는 반면, ‘빈칸 추론’ 3문항이 축소되어 총 5문항이 확대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통합형 시험에서 읽기 문항의 수가 증가되더라도 어려운 빈칸 추론 문항이 축소되고 지문 전반의 대략적인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의파악 문항이 늘어나게 되어 읽기 문항이 늘어나더라도 학습자의 시험 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쓰기 문항의 확대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유익한 문항 유형을 포함하기 위한 다양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연구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 교수·학습 이론(Bachman, 1990; Bachman & Palmer, 1996; Brown, 2007; Ellis, 2003)에 따르면, 언어의 4기능의 단순한 합이 언어능력의 전체가 될 수 없으므로 4기능을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간접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쓰기 문항 유형이 확대된 점도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유용한 문항 유형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형 수능의 평가 체제를 구안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5학년도 수능은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6학년도 수능의 평가 체제 및 검사지 구성, 출제 지침, 세부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출제 범위에 포함된 교과목의 기능별(듣기·읽기·말하기·쓰기) 성취기준과 수능의 문항 유형별 평가 요소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통합형 수능 검사지 구성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은 평가 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형 수능이 학생의 영어 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의 원리를 적용하여 평가 목표를 분류하며, 타당도 높은 문항 유형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항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제 찾기 문항 유형보다는 짧은 대화 응답하기, 그림 일치 문항의 유용성에 대해 평균 점수가 다소 낮았다. 이

와 같은 설문 결과와 더불어 출제위원을 포함한 수능 전문가 집단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통합형 수능의 구성에 필요한 문항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설문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능의 변화는 학생들의 불안을 조장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수험생과 학교 현장에서 통합형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의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양정호, 2012)에서도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수능시험 개편만으로 사교육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2015학년도 모의평가의 시험유형이나 수준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새로운 시험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고심하게 될 학생들의 수험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26.).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4학년도 수능 시험 개편 방안. 보도자료.
- 교육부. (2013. 8. 27).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보도자료.
- 교육부. (2014. 2. 13). 2014년 교육부 업무 보고. 보도자료.
- 교과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12. 10).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보도자료.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9. 23).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 및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 김성열. (2013). 대학입시 간소화의 의미와 의의. *교육정책포럼*, 238, 4-7.
- 김성혜, 김용명, 이병천, 박지선, 황필아. (2013). 수준별 수능 영어 영역 시험 개선 연구(연구보고 CAT 2013-30).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명, 고현숙, 이완기, 김진석, 금용한, 김상재.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개선 연구(연구보고 CAT 2010-1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명, 권오량, 이완기, 김진석, 고현숙. (2011).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 평가 방법 개선 후속 연구(연구보고 CAT 2011-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용명, 이병천, 김성혜, 박지선, 황필아, 이명애, 박진동. (2013).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의 시험 체제 및 검사지 구성 방안 탐색(연구보고 ORM 2013-22-5).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 이양락, 유영희, 연근필, 최원혜.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I(연구보고 ORM 2005-32-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병영. (2013). 대학전형 간소화, 실천 방안과 쟁점. *교육정책포럼*, 238, 4-7.

- 성시윤, 천인성. (2013. 1. 11). *서울 주요 9개 대학, 선택형 수능 시행 유보 촉구*.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392405 에서 2013년 5월 8일에 검색.
- 양정호. (2012).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분석. *교육평가연구*, 25(2), 167-19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3. 4). *2015 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 학습 안내 및 Q&A 자료집 관련 설명*. 설명자료.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Longman.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성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0-784 서울시 중구 정동길 15-5
Tel: (02)3704-3817/H.P.:010-9098-5610
Email: shkim@kice.re.kr

Received 15 March 2014

Revised 10 May 2014

Accepted 16 May 2014